



독자가 쓰는 2004 지상캠페인 한국 불교 달라져야 한다

### 쉽고 통일된 '한글 금강경'을

<금강경>은 주로 고려대장경에 있는 '구마라집역 고대중국 한어 금강경'을 말한다. 구마라집역 금강경이라고 하지 않고, 구마라집역 고대중국 한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마라집은 현대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라는 의미다. 금강경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따위의 학술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쨌거나 금강경은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인도어로 쓰여진 경전이다. 그런데 1600년전 구마라집이 '육조 해능처럼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다.

음독을 '한글 금강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 소의경전 결집대회를 열어야 한다. 금강경 번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해, 매주 일요일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충분한 토의를 해, 일년이든 이년이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금강경을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금강경을 제시해야 한다.



불과 100년도 안된 독립선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중국에서도 100년 전의 중국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는 구마라집역 고대중국 한어 금강경을 유창하게 읽고 해석할 수

### '소의 경전' 불구 번역 제각각 결집대회 열어 공식 번역해야

있는 중국 스님이나,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는 중생이나 형상 없는 중생이 생각이나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을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기쁨의 세상'으로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03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기쁨 세상으로 제도하였으면서도, 제도하였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04 '중생들을 기쁨 세상으로 제도하였다'는 생각을 하는 보살은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 모든 중생들을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기쁨의 세상'으로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03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기쁨 세상으로 제도하였으면서도, 제도하였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04 '중생들을 기쁨 세상으로 제도하였다'는 생각을 하는 보살은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현준(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 태고종 복지사업 '큰 틀' 짰다

## 내년 1월 법인인가 확실...충북·제주 등 지역 법인과 연계

그동안 사회복지에 뛰어들지 못했던 태고종이 내년부터 불교계 사회복지의 한 축으로 등장한다. 태고종 사회복지법인이 내년 1월 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충남 논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사실상 확보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사변경 신청을 해 문 상태로, 이사 5명 중 4명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총무원 관계자로 변경된다. 이사변경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례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태고종 총무원은 이사변경 승인이 이뤄지는 직후 중 단명을 포함한 명칭으로 법인명을 바꿀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방침을 세워두고 장기적인 법인 운영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광명 천관사의 지원으로 경기 청평에 연건평 525평 규모를 갖추고 12월 4일 개관한 노인주거 시설인 태양실버타운(원장 이숙인)은 태고종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로 귀속돼 법인의 1호 시설로 기록될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다른 종단에 비해 사회복지사업 참여가 늦은 만큼 치매노인시설이나 노인주거시설과 같은 노인 복지에 집중함으로써 종단의 역

원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2월 16일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인사는 부장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부장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 안정과 화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12월 13일 조계종 총무원 새 문화극장에 해조 스님이 임명됐다.

**남동우 기자**  
**천태종 동안거 입재**  
천태종은 12월 1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사암에서 제88회 동안거 결재에 들어갔다. 이번 안거는 1만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 1월 13일까지 계속된다.

14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동서남북이 탁 트였거나/시방세계가 다시 어디 남았는가/한마음 주송소리 바위 사이 울려 퍼져/인간사 갖은 번뇌 모두 씻겨 나간다네"라는 법어를 내렸다.

박봉영 기자



1층과 2층기단부만 남아있는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석탑의 해체 모습

##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모습 공개

### 1층과 2층기단부만 남아...2009년 복원 예정

국내 최고(最古) 최대 석탑인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석탑이 1층과 2층기단부만 남긴 채 완전히 해체된 모습으로 12월 16일 공개됐다.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가 해체에 들어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타설된 콘크리트 185톤을 제거했고, 해체된 석재 하나하나 실측도

를 작성했으며 사진 촬영과 3D 스캔을 실시해 원형복원에 대비했다. 조사작업을 마친 석재는 미륵사지 내에 조성된 적재장으로 옮겨 쌓았는데, 해체된 석재 양은 1~2.5톤 석재 2000여점이나 된다. 13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동담 복원 사례를 신랄하게 비판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기간과 예산

이 늘어터라도 개치지 않고 백제시대의 아름다움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건 소장은 "2005년까지 1층 해체작업을 끝내고, 이후엔 정비 및 설계 작업에 들어가 2008년 말이나 2009년쯤에나 사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1층에서 보물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과 앞으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돌리고 있다. 박익순 기자

##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신설

### 내년2학기 불교학전공 10명 모집

중앙승가대가 2005년 하반기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정인)은 12월 6일 대학원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2005년 가을학기부터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은 동국대와 서울 불교대학원대학에 이어 세 번째. 이 같은 결정은 박사과정 개설을 통해 수행력을 갖춘 전문불교학

자 양성과 전문 승가교육과정의 고급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은 불교학과(불교·역경·실천불교(포교)전공) 10명을 정원으로 개설되며 이르면 2007년 하반기부터 불교학 박사 학위를 갖춘 전문인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승가학원 이사장인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박사과정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종단차원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조용수 기자

## 박사학위 있으면 강원강사 가능

### 조계종 교육원 승가대학령 등 개정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10일 교육원장실에서 제75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승가대학령' 및 '교육교역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주(승가대학장) 자격이 상향되고 강원외 학사관리가 강화된다.

이번에 마련된 교역자 자격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주의 자격이 교수경력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본교육기관 졸업 후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이수자는 중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매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강원교직자연수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 불참하면 최대 2년간 교역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기사작성요령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ho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 曹溪宗 元老議員 崇山堂 行願大宗師 元老會議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11월 30일 涅槃하신 曹溪宗 元老議員이신 승산당 행원대중사의 원로회의장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중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울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울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48년 12월 日

### 崇山堂 行願大宗師 추모제 日程

崇山堂 行願大宗師 추모제를 다음과 같이 奉行합니다.

— 다 음 —

49재	일시	장소	연락처
초재	12월 6일(음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	화계사	02)902-2663
2재	12월 13일(음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화계사	02)902-2663
3재	12월 20일(음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	무상사	042)841-6084
4재	12월 27일(음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화계사	02)902-2663
5재	1월 3일(음 11월 23일) 오전 11시	백담사	033)462-6969
6재	1월 10일(음 12월 1일) 오전 10시	수덕사	041)337-6565
7재	1월 17일(음 12월 8일) 오전 10시	화계사	02)902-2663

■문의: 화계사 ☎ 02)902-2663

大韓佛敎曹溪宗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 崇山堂 行願大宗師 門徒一同